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리포트

서울특별시, UN-ESCAP, CityNet공동주최

2016. 6. 8(수) ~ 10(금)

서울시청 신청사

시티넷 리포트

포럼 소개

작년 9월 25일 193개 유엔 회원국은 도심 주거지들이 큰 역할을 하는 11번째 목표가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를 채택하였다. 11번째 목표는 도시에서의 공공 서비스, 안전성, 주거지 그리고 교통 등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중점을 둔다. 아래에서는 시티넷,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 시티넷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도시 문제 전문가를 한군데로 모아 SDG의 타당성과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SDG의 11번째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회세션

개회사

개회사의 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샴샤드 아크타르 (Shamshad Akhta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비제이 자가나단 (Vijay Jagannathan) 시티넷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아로마 레바이 인도 국토연구원장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주제그룹 공동의장)의 기조연설로 구성되었다. 각 발표자들은 전 세계 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과 도시들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SDG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티넷 사무총장인 비제이 자가나단은 SDG를 목표에서 결과로 이행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및 도시들이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비제이 자가나단은 “본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험은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의 경험과는 다르므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도시 발전을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15년 간의 지속발전정책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시민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도시 문제의 해결책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비제이 자가나단은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이 향후 도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식들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국가의 시장 및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실행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션 1.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도시

시티넷 특별자문관(전 필리핀 산페르난도 시장)인 메리 제인 오르테가(Mary Jane Ortega)는 과거 시장들에게 여덟 개의 새천년개발목표들을 숙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이에 어려움이 따랐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각 도시 시장들이 SDG의 열 일곱 개 세부목표를 숙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테가 특별자문관은 지속개발목표의 지표들은 가난 해결, 복지 개선, 양성 평등 개선, 교육 향상 등 사람 중심의 지표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SDG는 적당한 가격대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알맞은 일자리들을 창출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표도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에 포함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협력 및 파트너십으로 지구는 이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오르테가 특별자문관은 SDG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녀는 필리핀의 산 페르난도 시의회 의 경우 도시의 모든 부문을 포용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도태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르테가 특별자문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를 인용하면서 서울시와 같은 도시는 서울 시민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도시라고 하였다. 그녀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도시들이 시티넷 또는 세계지방정부연합의 멤버가 되어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143개 도시연맹 LCP (League of the Cities of the Philippines)와 지방정부아카데미 등 도시들간의 상호 협력을 돕는 국가적 차원의 단체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녀는 단지 몇몇 지방 간부들만이 아닌 전 지방정부에게 역량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SDG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세션 2. 지속가능 도시 인프라

지속가능 도시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우수사례 런칭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nathan) 시티넷 사무총장은 아시아의 도시화는 서양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는 도시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식 부문과 불법 정착민들의 수는 점점 커져가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비제이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우수 사례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티넷의 정규 간행물 City Voices의 특별판인 “지속가능 도시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우수사례”는 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24인의 선구적인 아시아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으며 현 아시아 국가들의 체제 변화, 정책 변화, 도시화로 인한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간행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시장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사의 단어 수를 천

단어 내로 짧게 제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이 City Voices 특별판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와 같은 수많은 국제 공약들이 형성한 담화에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결국 공약에 따른 책임은 각 지역별 지도자들이 맡고 있으므로, 국제적 공약들도 지역적 차원에서 이행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아시아의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적 전략을 벗어난 새로운 모델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그 예로는 도시들이 보다 밀집해 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도시의 모든 계획은 통합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하며, 교통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서울 사례와 같이 인도를 넓혀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시티넷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이처럼 새로운 도시 모델은 경제적인 요소들만이 아닌 비구조적인 요소들도 고려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션 3-1. 지속가능 도시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우수사례 (시티넷)

사회자: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nathan) 시티넷 사무총장

각 발표자들은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간행물에 자신이 기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청중들은 발표자들의 기고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 페르난도 시의 고품 폐기물 관리 시스템

메리 제인 오르테가 (Mary Jane Ortega) 시티넷 특별자문관은 과거 필리핀 산 페르난도 시장이었을 당시 시의 고품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제일 큰 문제들 중 하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산 페르난도 시가 어디에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산 페르난도 시의 경우, 그 해답을 공학적으로 설계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르테가 전 시장은 그에 관한 다른 많은 요인들 역시 고려하여야 하였다. 그녀는 “첫번째로, 이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를 통하여 설계-건축-경영 동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어진 공학적 쓰레기 매립지는 수명이 15년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오르테가 전 시장은 고품 폐기물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공학적 쓰레기 매립지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산 페르난도 시는 매립지 건설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4R - 재사용 (reuse), [쓰레기] 감소 (reduce), 재활용 (recycle)과 플라스틱 사용 거부 (refuse to use plastic)- 을 홍보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키며 건설된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5년 정도 연장시켰다. 산 페르난도 시의 공학적 매립지 건설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다른 도시들은 이 방법을 거의 따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리핀의 시장들은 추후 당선되는 시장들에게 재정적 부담감을 안겨줄 것을 염려해 재정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예 금전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언급했다.

세베랑 페라이 시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다토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Dato' Maimunah Mohd Sharif) 세베랑페라이 시장에게는 90만명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시민들의 피드백과 작업의 진행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 시스템은 한 지역 주민의 발상인 MPSP Watch (세베랑 페라이 시의회 Watch) 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그 주민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에 대한 불만과 아이디어 등을 올릴 수 있었다. MPSP Watch의 창립자는 도시를 감독하기 위한 다른 방식들을 통합한 Better Penang Citizen Action Technology(BPCAT)를 만들었다. 마이무나 시장은 세베랑페라이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SMS)이 MPSP Watch와 BPCAT에 대한 답이라고 하였다. SMS는 각 시민들의 피드백에 대한 진행도를 추적하며, 지금까지 9732건의 피드백 중 9551건이 해결되었다. 이 피드백들은 도로 파임, 홍수 모니터링과 대응, 불법 고형 폐기물 투기 등 18개의 환경 관련 카테고리들로 나뉘어져 있다. 마이무나 시장은 SMS가 시에게 89%의 시민 만족도 (2015년), 그리고 피드백 처리 비용 감소 등을 포함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다. 현재, SMS는 다른 아시아권 도시들에게 ICT가 어떻게 시민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로 쓰이고 있다. 마이무나 시장은 SMS를 정부-민간-사람 파트너십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으로 간주하였다.

고령화 도시에서의 지속적인 도시 개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급속도로 도시화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코하마 시 역시 이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나오키 오토모 (Naoki Otomo) 요코하마 시 건축국 주택재생과장은 요코하마 시의 인구 변화를 예로 들며, 2019년까지 시 인구는 역대 최고인 374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나 이후에는 하향세를 보이며 2060년에는 시 인구가 321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속적인 도시에서는 노인들이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젊은 인구들의 유지 및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토모 과장은 요코하마 시가 고령화와 감소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시 인구의 다양한 생활방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사회적 교환, 보건, 육아, 교통환경, 재난경감, 일자리 들의 다양한 부문들을 합친 교외지역개발의 새로운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요코하마 시는 지역사회, 전문가들, 민간 부문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인 보건과 복지, 정보기반시설, 정책입안과 주택재생 등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은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그것들을 ICT와 연결하여 노인복지시설과 기타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통해 수리 혹은 교체가 필요한 낡은 계단과 경사로, 주거지와 기반시설 등을 식별해 낼 수 있었다.

난지도 이야기

전 서울 부시장 김상범 교수는 서울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섬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꾸는 엄청난 일을 떠맡았었다고 설명하였다. 난지도는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후 심각한 악취와 붕괴의 위험에 처하여 거의 죽은 땅이나 다름없었다. 난지도 복원에는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 2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복원 초기에는 난지도 인근에 거주하는 950세대의 반발과, 공사 도중 폭우로 인하여 17개의 비탈면들이 붕괴되는 사고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서울이 국제적인 2002년 월드컵 주최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모두에게 난지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강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완공 후 난지생태공원은 다양한 동식물들을 섬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1994년에 있었던 89종의 식물과 502종의 동물들이 2010년에는 각각 167종과 731종으로 늘어났다. 난지도의 일부에는 디지털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현재 많은 서울시민들은 난지도를 일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지역명소로 꼽고 있다.

지속적인 도시의 미래를 향하여: 세계적 과정과 지역적 행동에 대한 속고

도노반 스토리 (Donovan Storey)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속적도시개발부장은 2015년을 향후 15년간의 개발 노력을 좌우할 수많은 국제적 공약, 목표, 계획들이 채택되었던 의미 있는 해라고 하였다. 몇 가지 예로는 샌다이 강령, 아디스 아바바 액션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들 수 있다. 스토리 부장은 지방정부들이 이러한 국제공약들을 지역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속개발목표의 경우 3분의 2 정도 지방정부를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유엔의 제일 큰 난관은 국제정책들과 지방정부들의 활동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스토리 부장은 국제적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이끌 도시들의 역할에 점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새로운 도시 계획들은 중소도시들의 번영에 중점을 둘 것이며, 아시아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속도시발전계획을 반영한 지역적 계획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자카르타 대책 촉구’로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어린이, 여성, 민간사회 등의 핵심적 부문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하자는 계획이다. 다른 예로는 서울시와 시티넷이 공동 개발중인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이 있으며, 이는 필수적인 아시아권 도시 관련 정보, 교훈, 의견, 경험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 J. M 무자밀 (A. J. M. Muzammil) 콜롬보 시장은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이 도시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경험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모인 경험은 환경친화성, 안전성, 시민 참여도 등 지속적인 도시들의 조건을 식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플랫폼을 통해 도시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발표 후, 다토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Dato' Maimunah Mohd Sharif) 세베랑페라이 시장은 시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게 도왔다고 말했다. 샤리프 시장은 해당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지역적 개발 관련 문제들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식별하고, 과정을 감독하며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했다.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정보공유와 통신 관련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세베랑 페라이 시에 의해, 그리고 “Better Penang 어플리케이션”은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마리벨 사센돈실로(Marivel Sacendoncillo) 필리핀 지방정부아카데미 이사는 아시아가 유독 유대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발표자들에게 도시개발과정에서 특히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유대관계의 특성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은 아시아에서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시아의 도시화라는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고려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서양의 도시화 모델이 아시아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서울의 발전 초기 단계를 예로 들며, 서울은 전체적인 지역 사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수 집단들의 사회적 활성화에 집중했다고 하였다.

세션 6-3. 안전도시 (유엔해비타트 / 시티넷)

사회자: 주마 아시아고(Juma Assiago)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프로그램 대표

세션소개

유엔 인간정주계획의 안전도시프로그램은 정부 내 다차원적, 다부문적 접근을 통하여 도시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도시들의 거주성을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도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특히 지방 차원에서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바이다. 이 세션은 유엔 인간정주계획의 안전도시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시아적 관점에서 안전도시들을 바라보고 관련 우수사례들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세션 사회자인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프로그램 대표자 주마 아시아고(Juma Assiago)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채택 직후 유엔해비타트의 활동, 향후 SDG 시행에 있어 도시들과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션을 시작하였다. 그는 도시화가 전국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단이며, 도시화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도시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재검토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도시들이 접근되고 활용되는 데 아직까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별화’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은 도시들과 거주지들을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듦으로써 발전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 점은 도시발전에 연관된 11번째 목표가 홀로가 아닌 평화, 안전 그리고 통치 관련 16번째 목표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시티넷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도시들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들을 모니터링과 발전 계획에 참여시키고, 안전성에 있어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도시들이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성 조성을 위한 공공장소의 개선

비마 아르야 수기아토 (Bima Arya Sugiarto) 보고르시장은 보고르가 이십만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였으나 이후 인구가 백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기아토 시장은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문화유산도시, 스마트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도시를 통합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르에서는 공공장소와 서비스의 폭을 넓히자는 압력이 있었다. 한 예로, 작년에만 15곳의 새로운 정원들이 만들어지며 시 전체의 정원 수를 200곳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미학적인, 녹지 조성의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한 정원은 청소년들에게 그래피티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하여 시의 공공 가물 파손율을 낮추었다. 또한 인도와 자전거도로 역시 늘어났으며, IT기술의 활용과 Mobile Curhat과 같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담과 권고 등을 제공하는 차량 운행도 시행되었다. 수기아토 시장은 보고르 시민간에 사회적인 화합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으며, ‘We Love Bogor’ 캠페인을 세계자연보호기금의 ‘We Love Cities’ 운동에 비유하며 보고르시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하였다.

안전성에 대한 산 페르난도 시의 관점

메리 제인 오르테가(Mary Jane Ortega) 시티넷 특별자문관 (전 필리핀 산페르난도 시장)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시티넷과 유엔해비타트와의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설명하였고, 필리핀에서 열린 안전도시포럼에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산 페르난도시는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들에 보다 집중을 하였다. 오르테가 시장은 공공장소는 시민들이 서로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곳이라 하며 수기아토 시장의 녹지와 공공 장소에 대한 강조에 동의하였다. 그녀는 덧붙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를 한 데 모아 건전한 통치의 기준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아시아연대연구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필리핀 국가경찰과 협력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필리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같이 협업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하여 필리핀의 심각한 마약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그것은 경찰의 문제뿐만이 아닌 시정부와 시민들의 문제임이 파악되었다. 그로 인해 단순히 마약복용자들을 편협한 시각으로 보기보다 피해자들의 재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범죄는 일방적인 국가의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과 시민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인성은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지한 후 관련 카운슬링 워크숍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성 구축: 로드맵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지부 (UCLG ASPAC) 사무총장 버나디아 찬드라데위(Bernadia Tjandradewi)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존엄성, 사람, 환경, 정의, 번영, 파트너십의 카테고리 분류하였고, 각 목표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녀는 ‘안전성’에 연관된 세계지방정부의 업적들을 언급하였다. 그 예로는 Global Taskforce, *Shaping the New Urban Agenda* 그리고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의 출간물, 그리고 자카르타에서의 현지 수요를 반영한 150개의 공공 공간 건설 목표와 같은 모범 사례 기록과 공유가 있다.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지역적 활동을 위한 ‘예상성과’ 와 ‘업적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로드맵도 언급하였다. 끝으로, 그녀는 우리에게 있어 제일 큰 도전은 안전성이라는 관념을 우리 사회 깊숙이 고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또한 안전성은 범죄 뿐만이 아니라 교통 등의 측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관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녀는 도시간 협력을 통하여 공유되고 재적용될 수 있는 안전에 연관된 모범 사례들을 수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한 서울시의 범죄 예방

서울시 디자인 개발팀 강호진 팀장은 국내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CPTED)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성이 증진된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20세기의 가속된 산업화로 인한 후유증의 일환으로 공공 공간에서의 절도, 폭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겪고 있었다. 강 팀장은 염리동 ‘소금길’ 과 공진중학교 ‘드림업’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벽을 다시 칠하거나 학내 사각지대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의 비교적 저예산 방안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동디자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발표 후 토론 시간에는 서로간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응집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에 대해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은 생존을 위한 경쟁 사이에서 사회적 응집성이라는 관념이 상실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마 아르야 수기아토 보고르시장은 보고르가 인도네시아를 통틀어서 제일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도시였던 적이 있다는 시민들의 기억을 촉매로 하여 “We Love Bogor”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예로 들며, 사회적 응집성은 집단기억을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메리 제인 오르테가 시티넷 특별자문관은 수기아토 시장에 덧붙여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강압적인 접근을 통하여 집단적 가치들을 심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활발한 정부와 시민들간의 소통이 사회적 응집성을 달성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다른 질문으로는 안전성이 상대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실한 기준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강효진 팀장은 어떤 도시가 더 안전한지 평가하기 위한 범죄지수는 이미 존재하지만, 안전성이 상대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벼운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추가로,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아이들의 교육방법, 사회 그 자체 등 안전성 문제의 근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협동 노력으로 위와 같은 안전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회를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써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시아의 안전도시 관련 도시 간 협력 촉진

마지막으로, 시티넷 사업담당 사엘 코르테스(Sayel Cortes)는 시티넷과 안전도시세션의 연관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시티넷은 멤버들과 파트너들간의 정보공유를 장려하는 기관으로, 이같은 과정에서 안전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한가지 예시로는 시티넷, 유엔해비타트,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달성된 안전도시프로그램은 도시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범사례들의 기록, 촉진과 재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같은 협력의 다른 예시로는 시티넷의 안전도시 지식교환 세미나 (2015년 11월)와 세이프티핀 (도시 내 장소들의 안전수치를 매기는 앱)에 관한 웨비나 (2016년 4월) 등이 있다. 그는 특히 안전도시 관련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수집, 적용 그리고 평가되는 장소로 사용될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 7. 도시 간 협력: 도시 SDG 지식 플랫폼

사회자: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nathan) 시티넷 사무총장

도노반 스토리 (Donovan Storey)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속적도시개발부장과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유희숙 차장은 온라인플랫폼의 개념, 구축 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서울시 그리고 시티넷이 공동으로 만든 플랫폼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의 우수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정책들을 보유한 도시들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가 있는 도시들은 플랫폼에서 다른 도시들의 우수정책을 접하고 각 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우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집중할 것이며, 첫째로 지속가능발전목표(해당목표 및 세부목표들)를 소개할 것이다. 이후, 각 도시의 성공적인 정책들이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연관 연락처와 시각자료들과 함께 올려질 것이다. 이 플랫폼은 전자기기에 맞는 앱 형식으로도 출시될 것이며, 58개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해결책들은 문제가 있는 도시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남길 것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시들에게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도시들이 정책 적용 후 남기는 피드백은 해당 정책의 장소 불문한 적용 가능성 평가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이 IT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소통, 정책 공유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은 관련 도시들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도울 것이며,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도시들의 기여를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도시 발전 관련 지식 관리를 위한 지역적 목표

세션 7의 두 번째 파트는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 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장들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버나디아 찬드라데위(Bernadia Tjandradewi)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지부 (UCLG ASPAC)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식 관리에 있어서 세계지방정부의 업적과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을 언급하였다. 먼저 그녀는 열 일곱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 간의 상호연결성과 그 목표들이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녀는 세부목표들의 65%가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지방정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국제기구들이 지방정부들에게 지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적합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나, 그녀는 SDG가 MDG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도시들이 지식공유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대부분 아세안 회원국가들의 지역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UCLG ASPAC의 지식수집과 재적용 관련 업적들을 조명하였다. 남남협력은 이같은 업적 중 하나로 협동계획과 공공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이 공유되는 예이다. 지도력과 헌신력 그리고 적합성에 대한 주의를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정보들이 중요한 이유는 저장, 공유, 적용될 수 있는 정보들의 특성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수단이 될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은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사례들은 필요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간 협력과 정책공유 강화

주니치 후지노 (Junichi Fujino)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주요 연구원 (국립환경연구소 시니어 조정자)은 IGES의 새로운 글로벌 (global + local)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파트너십의 예로 TAP (변화실행계획), Y-Port센터,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교토의 “에코라이프 챌린지”, 그리고 기타큐슈 시와 만달레이 시의 협작인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들었다. 그는 도시 SDG 지식 플랫폼과 비슷한 예로 토야마시에서 열린 G7 환경장관 회담의 동시세션을 언급하며, 이는 시장들이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을 한 경우라고 하였다. 해당 세션은 적용가능한 우수사례 공유, 도시들에게 필요한 조치 탐구, 한 단계 높은 계획과 실천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후지노 연구원은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 하에 협력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긴 “도시는 곧 우리가”라는 말로 발표를 끝마쳤다.

비마 아르야 수기아토(Bima Arya Sugiarto) 보고르시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들을 지역 사회들에게 설명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선점하게끔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이 해결할 수 없는 지역 특유의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수기아토 시장은 또한 모범 사례뿐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 또한 동등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모든 도시들과 시장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다토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Dato' Maimunah Mohd Sharif) 세베랑페라이시장은 이 포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공유된 정보들을 모아 각 나라의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샤리프 시장은 사람들이 지역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권장했으며, 모든 지속가능개발목표들이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세베랑페라이 시의 “명시위원회” 설립을 예로 들며 그것이 주거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명시위원회의 설립은 현지주민들의 주거지 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켰으며 개발자들의 예산도 감소시켰다. 샤리프 시장은 다양한 배경에 맞추어 적용되었을 시 효과적인 결과들을 낼 수 있는 성공적인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논평을 마쳤다.

발표 후 청중에서는 몇 가지 추가 질문과 논평이 뒤따랐다. 한 참가자는 도시 SDG 지식 플랫폼이 도시,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 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 참가자는 이미 있는 플랫폼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른 참가자는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을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모아서 기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답하여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지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지만 핵심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지식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식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정해진 구조가 없다고 하였다. 어려운 점은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각 지역들에 맞게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정보통신 기술 사용을 추천하였다. 유희숙 차장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쉬우나,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공유되는 정책들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지를 먼저 평가할 것이며, 그 정책의 신뢰성은 이미 정책을 적용한 도시들의 피드백들로 보다 정확히 평가될 것이다.

폐회세션

세션 5 요약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는 첫째로 정책은 포괄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회 경제적 부문,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도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정책 구상과 적용과정에 편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김 대사는 도시들과 이해당사자들간의 연결을 도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SDG 지식 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동시세션 6 요약

박연희 지방정부연합 (ICLEI) 한국사무소장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들을 위한 도시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 소장은 인제시의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목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공공조달, 서울시의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과 유연환경계획의 환경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한 EbA (생태계기반 적응)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박 사무소장은 강압적이지 않은 도시경영시스템과 혁신적인 공학 기술이 합해지면 지속가능한 도시들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상명대학교 송영채 박사는 전자정부 (WeGO)의 “*ICT기반 스마트 지속도시*” 관련 세션을 요약하였다. 그는 SDG 11을 강조하며, 한국에 존재하는 지식 격차를 언급하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송 박사는 파블로 오르테가 현 산 페르난도 시장의 CPS(시민참여시스템), 그리고 임학진 전자정부 자문가의 “도시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들을 찾아야 한다” 등의

말들을 인용하였다. 그는 해당 세션의 목적, 즉 도시들에게 지속적인 스마트 디자인을 고안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프로그램 담당을 맡고 있는 주마 아시아고(Juma Assiago)는 “*안전도시*” 동시세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11번과 16번 SDG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목표들을 이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도시 세션은 도시경영상의 문제, 범죄, 자연재해와 교통 등 다방면에서 안전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아시아고 담당관은 다섯 명의 발표자들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며, 도시가 ‘안전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지방경영, 다른 도시와 국가들 간의 협력과 설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그는 세션에서 제기되었던 안전성에 관한 인식과 표준화에 대한 질문을 언급하며, 향상된 정보 수용력은 도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죄 지수를 계산하여 지역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도시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방재연수원의 사라 웨이드-아피첼라(Sarah Wade-Apicella)는 동시세션 6-4의 주제였던 재난경감 (DRR)과 기후변화적응(CCA)을 다루었다. 그녀는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도시들의 공통된, 일관성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재난경감을 위한 도구, 교육, 계획, 자금조달방법, 과거 자연재해들에서 얻은 교훈 등 세션 발표자들의 주제들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결과문 발표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시나(Kilaparti Ramakrishna)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대표와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nathan) 시티넷 사무총장은 각 공동주최기관들을 대표하여 포럼 결과문서를 발표하였다. 결과문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식 성명’은 포럼이 이끌어낸 다섯 개의 주요 결론들을 담고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권
2. 시민참여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
3.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스마트 계획
4. 목표이행을 촉진하는 다층식 협력 관계
5. 도시들 간의 지식 공유

서울시 공식 성명은 “그 어떠한 사람이나 도시이거나 결코 도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렬한 문구로 끝을 맺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포용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